

성격장애군간 인물화검사의 반응비교

성경순 · 박순환[†]

부산 동인병원

본 연구는 성격장애 A, B, C군이 인물화검사시 서로 어떤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이런 특징들이 각 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별해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성격장애군으로 진단내려진 A군(18명), B군(20명), C군(11명) 입원환자들이었다. 측정변인들은 그림의 크기, 위치, 그림의 순서, 몸의 자세, 팔의 위치, 선의 압력, 선의 지속성, 선의 음영, 머리의 단순화, 신체의 단순화, 성적 정교화, 성적 분화 등 12개의 변인이며, 각 군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그림의 크기, 그림의 순서, 선의 지속성 변인에서 차이가 났다. 변인들을 각기 세부변인으로 나누어 두 집단간의 비교를 하였을 때 A군과 B군을 구별하는 세부변인은 그림의 크기, 그림의 순서, 선의 약한 압력, 선의 비지속성이었으며, B군과 C군을 구별하는 데는 좌측위치, 그림의 순서, 선의 지속성, 선의 비지속성, 선의 약한 압력 변인이었고, 마지막으로 A군과 C군을 구별하는 세부변인은 그림의 크기, 하단위치, 신체의 단순화, 성적 분화 변인이었다. 모든 세부변인들을 투입하여 판별분석을 했을 때 세 군을 판별하는 정확도가 71%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군을 구분하는 세부변인 9개 모두를 투입하였을 때보다 6% 더 높은 수치였다. 결과적으로 세 성격장애군을 구별하는 데 있어 그림의 크기, 그림의 순서, 그림의 지속성, 이 세 변인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는 무의식적인 방어와 의식적인 저항으로 인하여 성격의 중요한 측면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보다 성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감추기 위해 더 세련된 방어를 사용하는 이유로 해서 솔직하지 않거나 제대로 응

답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한계점은 그림검사를 통해 정신분석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

대개 개인은 상징화를 통해 자신의 중요한 주제나 역동, 태도를 반영시킨다. 흰 종이 위에 '뭔가를 그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성경순 · 박순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113-1 617-020 /

Fax : (051)316-6857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비구조화된 자극을 그리도록 개인에게 요구할 때 이런 개인특유적인 역동들이 더욱 많이 표현되는 것 같다. Hammer(1958)가 언급하였듯이 "그림은 개인의 내부세계, 특질과 태도, 행동적 특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하며, 그 개인의 내부적 용량이 정신역동적 갈등을 어떻게 대인관계에서나 심리내에서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였고, Levy(1950) 역시 그림은 의식적인 표상임과 동시에 무의식적인 현상의 숨겨지고 장식된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인물화란 자아개념의 투사로서 환경내의 타인에 대한 태도, 외적 평가의 결과, 습관 형태, 정서적 상태 등의 표상이며, 검사자나 그 상황에 대한 피험자 태도의 투사이고, 일반적인 생활이나 사회에 대한 그의 태도의 표상"이라고 요약하였다. Bellack과 Symonds(1953)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법이 Rorschach나 TAT와 같이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투사적 기법보다 성격 내의 더 깊은 측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고 덧붙여 Rorschach는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반응을 하는 지각과정(perception process)인 반면에 그림그리기는 효과과정(effector process)으로서 그것은 적응잠재력을 나타내며 지각과정보다 정신병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언급하였다(김숙희, 1985에서 재인용).

DAP를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림의 형식과 그림의 내용,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된다(Levy, 1950). 그림의 형식은 크기, 위치, 선의 강도 등을 포함하고, 그림의 내용은 처음에 그리고 있는 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눈동자가 없는 눈이나 갈퀴모양의 손과 같은 특징이 어떠한 병리적인 문제와 관련있는가를 살펴본다. 전반적인 느낌이나 인상과 같은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앞서 기술한 차원들을 해석해야 하는 주관성의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Hammer, 1958; Handler, 1985), 1940년대 인물화의 세부특징의 총개수를 아동의 인지적 성숙의 지표로 사용하였던 그 때부터 꾸준히 인물화검사가 적응 수준을 알려주는 타당한 검사라고 인정받아왔다(Roback, 1968; Yama, 1990). 특히 그림의 질은 적응의 예후 수준과 관련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Maloney & Glasser, 1982). DAP를,

성격을 해석하는 도구로 확대 사용하는데는 Machover(1949)의 공헌이 상당히 컸는데, 그녀는 "신체상을 투사한 인물화검사는 개인의 신체 욕구나 갈등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런 도구가 된다"고 말하였다. 특히 그림의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측면, 예를 들면 그림의 크기, 위치, 선의 질 등이 정신병리나 성격적인 면을 측정하는 데 꽤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Swensen(1957)도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타당도를 살펴보면 그림의 크기와 위치가 내용보다 더 신뢰롭다고 같은 의견을 내었다. Ogdon(1977)은 결국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모아서 성격적인 요인이나 장애와 관련된 전반 특징, 세부 특징들을 범주화한 진단적 요강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그림의 특징과 성격적인 특징간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DSM-IV(APA, 1994)에 따르면, 성격장애는 성격특질이 유연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이어서 의미있게 기능상로나 주관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격장애를 증상 및 정신병리의 유사성에 따라서 세 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A군은 기이하고(odd) 꺾이한(eccentric) 행동과 정서 철수의 특징을 보이는 군으로서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으며, B군은 연극성, 자기애성, 반사회성, 경계선성격장애가 포함되어 대개 연극적이고(dramatic) 변덕스러운(erratic) 과장된 정서성을 보인다.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들이 있으며 이 장애를 지닌 환자들은 불안 및 방어적인 복종성과 같은 특징들을 보인다. 세 군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임상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을 봐서(Kass, Skodol, Charles, 1985; Zimmerman & Cryell, 1989) 인물화를 통해서도 세 성격장애군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성격장애군의 특징을 살펴보기 앞서 건강한 사람의 그림특징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gdon(1982)은 그림의 특징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Morena(1981)는 건강한 사람의 그림과 관련된 문헌을 개관하면서 그림의 특징과 심리적인 의미를 연관

시켰다. 그는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자존심, 자기확신감, 자기안정감, 원만한 대인관계, 자기와 환경에 대한 개방성, 분명한 성적 지향성, 자기와 삶을 체계화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시사하는 그림의 특징을 다음으로 요약하였다. 1) 긍정적인 자존심은 과다하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 견고하게 균형잡힌 형태의 특징을 지니며 선의 질도 분명하며 신체의 필수부분들이 뚜렷히 그려져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2) 자기안정성과 자기확신감을 알 수 있는 특징들은, 그림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경직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 있으며 선의 질도 확실한 것 등이다. 3) 몸자세가 정면을 향해 있으며 웅크려져있지 않고 팔이나 다리가 밖으로 뻗은 경우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한다. 4)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그림에서(예를 들면 Draw-A-Family) 인물들이 적당하게 가까이에서 위치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5) 안정성과 질서정연함은, 그림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고 부분 부분들이 통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6) 성적인 지향성은, 그림들의 성이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분명하며 적절하게 성적인 특징이 포함되고 먼저 그런 인물에 따라 반대 성의 인물의 크기가 수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그림의 크기, 위치, 인물의 자세, 선의 질, 신체의 세부부분들, 성적인 정교화 등이 건강한 사람의 그림속에 적절히 나타난다. 이에 반해 Maloney와 Glasser(1982)는 적응의 어려움을 지니는 사람을 구별짓는 부적응 지표 9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략(Omission)으로서 그림의 의미있는 세부특징(예, 다리, 발, 팔)이 빠진 경우이다. 둘째, 투명성(Transparency)으로, 신체일부분이 팔, 다리, 옷, 내부기관 등을 통해서 보이거나 신체 내부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셋째, 왜곡(Distortion)으로서, 거대하거나 긴 팔, 작은 머리와 같이 신체의 일부분이 비율적으로 명백하게 차이날 정도로 그려진 경우나 신체부분이 엉뚱한 곳에 연결되었거나 신체와 연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넷째, 신체자세의 불균형(Vertical Imbalance of Stance)으로 사람이 명백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섯째, 머리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원초적인 형태로 그려져 있거나 막대그림(stick figure)으로 처리하는 머리 단순화(Head Simplification)가 나타난다. 여섯째, 머리단순화와 유사하게 신체 단순화(Body Simplification)가 나타난다. 일곱째, 전반적인 질, 예술적 자질, 묘사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얼마나 인물화가 '실물(real life-like person)'과 비슷한지는 전반적인 질적 저하(Poor Overall Quality)가 부적응 지표가 된다. 여덟째, 성적 분화정도(Sexual Differentiation)로서, 그려진 인물이 여자나 남자로 얼마나 분명하게 구별되는지 하는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적 정교화(Sexual Elaboration)로서 성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나타나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이 그림에 많이 나타날수록 정신병리가 심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측I에 해당하는 장애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몇 편의 논문(김숙희, 1985; 김용동, 1983; 한영옥, 최정운, 1996)을 제외하고는 임상장면에서 접하게 되는 성격장애군을 대상으로 살펴본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격장애군간에 인물화검사의 특징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본 논문의 목적이며 이를 살펴봄으로써 성격장애군을 구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3개 병원(동인병원, 동아대학병원, 메리놀병원)에서 1995년 10월부터 1998년 8월 사이에 입원을 하여 신체검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인 관찰과 면담 등을 한 후 성격장애로 진단내려진 환자들이다. 이들 중에서 지적인 능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능지수가 80미만인 환자를 제외한 보통 이상의 지적인 능력을 보이는 환자들만을 선정하였으며, 측 I의 정신병리상태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측I진단을 받은 사례를 배제시켰고 인물화그림에서 얼굴만을 그린 사례도 배제시켰다. 그래서 최종

A군 18명, B군 20명, C군 11명, 총49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A군, B군, C군 각 군에 속한 성격장애진단분포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각기 표 1-1, 표 1-2에 제시되었다. 표에 의하면, 교육수준별 두 집단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 C군이 B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이가 적었으며, A, B, C군의 남녀 비율상 B군과 C군들은 여자와 남자들이 각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A군은 전부다 남성들뿐이었다.

표 1. 각 군의 진단분포

장애군	하위유형			
	분열성	분열형	편집성	
A군(N=18)	(N= 3)	(N= 8)	(N= 7)	
B군(N=20)	연극성	자기애성	경계선성	반사회성
C군(N=11)	(N= 4)	(N= 5)	(N= 10)	(N= 1)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N= 5)	(N= 2)	(N= 4)	

표 2. 각 군의 나이, 교육기간, 남녀 비율

변인	A군	B군	C군
나이	30.61(11.44)	32.05(13.28)	22.45(5.93)
교육기간	12.00(3.46)	11.29(2.84)	12.80(1.47)
남:녀	18:0	15:5	7:4

()는 표준편차.

채점 방법

Swensen(1958)이 언급하고 있는 그림의 형식적인 측면 중 그림의 크기, 인물의 위치, 인물의 자세, 인물의 움직임과, Maloney와 Glasser(1982)의 부적응 지표 중 머리의 단순화, 신체의 단순화, 성적 정교화, 성적 분화를 종속변인으로 선택하였고, 그 외 선의 압력과 선의 지속성, 음영, 그리고 처음 그리는 성을 포함하여 총 12개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삼았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임상경험 3년 이상의 임상심리사 2명과 임상심

리전문가가 무선적으로 15명의 그림들을 뽑아 채점 기준에 따라 동시 채점하였고 충분한 합의하에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연구자가 최종 채점하였다.

크기

그림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수평선을 긋고 또 가장 낮은 지점에서 수평선을 그어 두 평행선간의 직선 거리를 cm로 측정하였다.

인물의 위치

인물의 머리끝중앙에서 발사이의 중앙점을 이은 선의 중심점이 용지의 중앙점에서 1 in.(2.54 cm)를 벗어나는 경우를 중앙에서 이탈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선의 중심점이 종이의 상, 단, 좌, 우 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물의 자세

인물의 자세가 정면을 보고 있는지 혹은 측면으로 그렸는지 결정하였다.

인물의 순서

처음 그리고 있는 성이 자신의 성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였다.

인물의 움직임

피험자가 투사하고 있는 인물의 움직임과 연구자가 지각하는 인물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일단은 연구자가 지각하는 인물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단순히 팔을 벌리고 있는 각도를 측정치로 삼았고, 몸에서부터 두 팔이 벌려진 각도를 각도기로 측정하여서 몸에 붙은 경우와 45도 이상, 이하 그리고 두 손을 뒤로 감춘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선의 압력

선의 진하기가 강, 중, 약, 혹은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하였다.

선의 지속성

선이 한 번만에 그려졌는지, 여러 번의 덧칠을 하였는지를 결정하여 지속성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였다. 만일 한 번만에 그려진 경우와 덧칠로 그려진 경우가 모두 나타난다면 혼합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음영

신체 일부분에 시커멓게 음영을 표시하였는지 하는 유무를 살펴보았다.

머리의 단순화

‘단순화’를 정의하는 연구자에 따라서 머리와 신체의 비율, 머리통의 길이로서 측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를 세부적인 부분들의 개수로 하기로 하였다. 머리부분에서는 머리카락, 눈, 눈동자, 눈썹, 코, 입, 속눈썹, 귀가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한 후 각 부위별 1점씩 할당하고 총 6점 중 취득한 총점으로 단순화를 측정하였다.

신체의 단순화

머리의 단순화와 마찬가지로 신체 부분 중 목, 팔, 손, 손가락, 다리, 발이 각기 있는지 하는 유무의 총점과, 소매끝선, 바지밑선, 옷의 깃, 단추, 주머니, 구두, 벨트, 기타 부착품들과 같은 옷과 관련된 특징의 개수를 모두 더한 총점을 기록하였다. 이 때, 손은 손바닥이나 손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발은 신발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점수를 주었다.

성적 정교화

그려진 인물이 여성으로나 남성으로서 특징지을 만한 특징이 얼마나 많은가를 재는 것으로서 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개수를 세어서 숫자화하였다. 예를 들어 여자의 경우 단발머리칼, 치마, S자 허리, 가슴, 귀걸이 등으로, 남자의 경우는 짧은머리칼, 팔근육, 다리 근육, 성기, 턱수염, 담배파이프, 넥타이 등을 살펴보았다.

성적 분화

인물의 성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얼마나 가름할 수 있는지 평가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하였다. 인물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는 연속선상의 ‘아주 모호(1점)’라는 쪽으로 표시하고, 아주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에는 ‘아주 분명(5점)’에 표시하였다. 성적 분화가 낮다고 함은 자신과 동일한 성의 인물에 대한 성적 분화점수가 낮은 경우와 이성과 동성간의 성적 분화점수차가 매우 작은 경우를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 살펴보았다.

자료분석

그림의 크기, 머리의 단순화, 신체의 단순화, 성적 분화, 성적 정교화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명명척도치이므로 χ^2 검중하여 세 집단간 차이를 살펴하였다. 크기, 단순화, 성적 분화, 성적 정교화는 변량분석하여 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세 집단간에는 의미없는 차이를 보이더라도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그림의 특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 집단의 가능한 3쌍의 쌍별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그림의 세부변인이 세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여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하였으며, 이 때 크기, 단순화, 성적 정교화, 성적 분화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변인들은 이항세부변인이거나 명목척도이어서 이를 가변수(dummy variables)로 변형하여 투입하였다.

결 과

세 집단간 차이분석과 쌍별 비교 분석

1) 그림의 크기

세 집단별 크기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A군의 크기가 B군과 C군에 비해 의미있게 크기가 작았다.

2) 그림의 위치

집단내 중앙, 좌측, 우측, 상측, 하측, 좌측상단, 우측하단 등의 전체 분포양상이 세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chi^2=12.12, p>.05$), 표 3에 제시하였듯이 각 위치별 세 집단간 빈도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집단간 비교를 한 결과, A군은 C군에 비

해 용지의 하측에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C군이 B군에 비해 용지의 좌측에 더 많이 그렸다.

3) 그림의 순서

처음 그린 인물화의 성이 자신의 성과 같은 성인지 다른 성을 그리는지 하는 빈도 차이를 비교했을

표 3. 세부변인에 대한 빈도분포와 결과값, 그리고 집단간 차이나는 세부변인과 결과값

변인	세부변인	A군 (N=18)	B군 (N=20)	C군 (N=11)	χ^2	쌍별 비교		
						AB	AC	BC
1.크기		^b 15(5.16)	^b 18.66(4.28)	^b 19.05(5.67)	^a 3.38*	*		*
2.위치	지면의 중심	9(50.0%)	13(65.0%)	6(54.5%)	.91			
	지면의 상단	1(5.6%)	2(10.0%)	1(9.1%)	.27			
	지면의 하단	4(22.2%)	4(20.0%)	-	4.52		*	
	지면의 좌측	1(5.6%)	-	2(18.2%)	4.41			*
	지면의 우측	-	-	-	-			
	지면의 좌측상단	2(11.1%)	1(5.0%)	2(18.2%)	1.37			
3.순서	지면의 우측하단	1(5.6%)	-	-	-			
	같은 성 먼저	17(94.4%)	13(65.0%)	11(100.0%)	9.99**	*		*
4.자세	다른 성 먼저	1(5.6%)	7(35.0%)	-				
	정면	15(83.8%)	18(90.0%)	11(100.0%)	3.07			
5.손의 위치	측면	3(16.7%)	2(10.0%)	-				
	몸에 붙음	2(11.1%)	4(20.0%)	4(36.4%)	2.59			
	45도 이하	11(61.1%)	10(50.0%)	6(54.5%)	.48			
	45도 이상	5(27.8%)	4(20.0%)	1(9.1%)	1.60			
	손을 몸뒤로 감춤	-	2(10.0%)	-	3.70			
6.선의 압력	강	1(5.6%)	1(5.0%)	-	1.05			
	중	9(50.0%)	9(50.0%)	5(45.5%)	.07			
	약	3(16.7%)	-	2(18.2%)	5.64	*		*
	불안정	5(27.8%)	9(45.0%)	4(36.4%)	1.22			
7.선의 지속성	지속	10(55.6%)	15(75.0%)	4(36.4%)	4.62			*
	비지속	5(27.8%)	-	5(45.5%)	13.16**	**		***
	혼합	3(16.7%)	5(25.0%)	2(18.2%)	.44			
8.선의 음영	있음	5(27.8%)	3(15.0%)	2(18.2%)	.98			
	없음	13(72.2%)	17(85.0%)	9(81.8%)				
9.머리단순화		^b 5.33(1.24)	^b 5.40(1.67)	^b 6.00(0.89)	^a .91			
10.신체단순화		^b 7.06(2.27)	^b 7.65(2.52)	^b 9.00(2.28)	^a 4.16*		*	
11.성적정교화		^b 1.00(.49)	^b 1.55(1.31)	^b 1.64(1.63)	^a 1.41			
12.성적분화		^b 2.28(0.83)	^b 2.65(1.22)	^b 3.09(1.30)	^a 1.84		*	

^a는 F값임. ^b는 평균(표준편차)임. * $p<.05$, ** $p<.01$, *** $p<.001$

때 세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A군과 C군은 자신의 성과 동일한 성을 먼저 그리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데 비해 B군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자신과 같은 성을 그리거나 다른 성을 먼저 그렸다. 그리고 두 집단간 비교에서 A군은 B군에 비해 같은 성을 먼저 더 많이 그렸고 B군은 C군에 비해 다른 성을 먼저 더 그렸다.

4) 인물의 자세

집단내 인물자세의 빈도분포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물화 각 자세별 세 집단간, 두 집단간 차이도 없었다. 대체로 모든 집단이 정면을 향한 모습의 인물을 그리는 편이었다.

5) 인물의 움직임

손의 위치상 세 집단간에는 손의 위치 빈도양상별 차이가 없었으며, 손의 위치별 세 집단 간, 두 집단간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6) 선의 압력

한 집단내에서 보이는 선의 압력 양상이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선의 압력이 각기 강, 중, 약, 혼합의 경우에도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집단간의 비교에서 B군은 약하게 선의 압력을 그리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A군과 C군은 약한 압력으로 그리는 경우가 의미있게 많았다.

7) 선의 지속성

선이 지속적이나 비지속적이나 혹은 혼합으로 나타났느냐하는 전체 빈도양상상 세 집단간 빈도차이를 보였으며($\chi^2=13.38, p<.05$), 각 선의 특징별로 보았을 때 선이 비지속적인 경우에만 세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간 비교시, B군이 C군에 비해 지속적으로 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A군과 C군이 B군보다 선을 비지속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더 많았다.

8) 선의 음영

선의 음영의 유무에 관한 한 세 집단간 차이나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 머리의 단순화

인물화의 그림중 머리부분의 전체 묘사수를 살펴보면 세 집단간이나 두 집단간에는 단순화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0) 신체의 단순화

신체의 단순화에서 세 집단간에 유의미하게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특히나 A군과 C군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C군은 A군에 비해 2-3개 더 많이 신체와 신체의 부속물을 더 많이 묘사하였다. 신체의 단순화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각 세부변인별 빈도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표 4에서 제시하였듯이 C군은 A군과 B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손과 바지밑선을 확실히 묘사하였다. 두 집단간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C군이 A군에 비해 의미있게 더 많이 발을 그렸고 B군이 A군에 비해 의미있게 더 많이 주머니를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

11) 성적인 정교화

세 집단간에는 인물화의 성을 나타내기 위한 묘사한 개수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적인 분화점수와 묘사하는 개수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r=.68$ 의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적인 정교화 개수가 많을수록 성적인 분화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2) 성적인 분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인물화의 성적인 분화점수에서 세 집단간 차이가 없었지만, A군과 C군간에는 차이를 보였다. 성적 분화점수를 동성과 이성간의 분화점수차로 보았을 때, 세 집단이나 두 집단간에는 둘 다 분화점수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판별분석

모든 세부변인들을 이용하여 세 집단을 구별하였을

표 4. 신체의 단순화에 대한 빈도분포와 결과값

세부 특징	A군(N=18)	B군(N=20)	C군(N=11)	χ^2
목	15(83.3%)	19(95.0%)	11(100.0%)	3.54
팔	18(100.0%)	20(100.0%)	11(100.0%)	-
손	8(44.4%)	11(55.0%)	11(100.0%)	13.18*
손가락	9(50.0%)	7(35.0%)	4(36.4%)	.99
다리	18(100.0%)	20(100.0%)	11(100.0%)	-
발	14(77.8%)	16(80.0%)	11(100.0%)	4.53
소매	12(66.7%)	12(60.0%)	10(90.9%)	3.82
바지밑선	9(50.0%)	10(50.0%)	10(90.9%)	6.88*
칼라	8(44.4%)	9(45.0%)	7(63.6%)	1.23
단추	3(16.7%)	5(25.0%)	2(18.2%)	.44
주머니	-	3(15.0%)	-	5.66
구두	3(16.7%)	2(10.0%)	2(18.2%)	.54
벨트	5(27.8%)	5(25.0%)	3(27.3%)	.04
기타	4(22.2%)	6(30.0%)	2(18.2%)	.62

* $p < .05$, ** $p < .01$

때 판별함수 2개를 얻었으며 첫 번째 판별함수와 두 번째 판별함수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표 5). 판별함수와 개개의 세부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판별함수1에서는 비지속성, 순서, 약한 압력, 좌측 위치들이 .30이상의 상관을 보이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세부변인은 비지속성으로서 .58의 상관을 보였다. 판별함수2에서는 크기, 성적 분화, 머리 단순화, 신체단순화, 성적 정교화, 우측하단위치와 .30이상의 상관을 보이며 그 중 크기가 .59로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판별분석을 통해 얻은 함수를 이용하여 세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표 7에서 보듯이 전체 사례의 71%를 정확하게 분류하였는데, 이는 33.3%의 우연에 의한 집단 변별력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두 집단을 변별해주는 세부변인 9개를 모두 투입하였을 시의 판별확률 65.31%(표 8)보다 6% 더 높은 것이었다. 실제로 A군을 A군으로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가 66.7%이며 실제로 B군을 B군으로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가 80.0%이며 C군을 C군으로 올바르게 판별할 경우가 63.6%로서 B군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두 집단을 변별해주는 세부변인이 9개만므로 세집단을 판별할 때

실제로 A군을 A군으로, C군을 C군으로 올바르게 판별하는 율이 모든 세부변인으로 세집단을 판별할 때에 비해 10% 이상의 정확률을 높이는 반면에 B군을 B군으로 분류하는 율은 심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인물화검사에서 성격장애군간 어떤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성격장애군을 잘 변별할 수 있는지 하는 정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의 크기, 위치, 인물의 자세, 인물의 움직임, 선의 압력, 지속성, 음영, 머리의 단순화, 신체의 단순화, 성적인 정교화, 성적인 분화, 그리고 그림의 순서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림의 크기, 그림의 순서, 선의 지속성에서 세 집단간 빈도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변인들을 세부변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빈도분석을 해 보았을 때도 그림의 순서, 선의 비지속성변인이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두 집단을 구별해주는 변인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쌍별비교를 하였으

표 5. 판별함수

함수	Eigen값	변량율	정규상관계수	Wilk's Lambda	χ^2	자유도	유의도
1	.7590	63.16	.6569	.3940	40.046	14	.0003
2	.4428	36.84	.5540	.3631	15.762	6	.0151

표 6. 판별함수와 세부변인들과의 상관

세부변인	함수1	함수2
비지속성	.57862*	.06006
순서	-.52951*	.11133
압력 약	.37844*	.01031
좌측위치	.31141*	.19966
손뒤감춤	-.26428*	-.06320
압력 불안정	-.22941*	.07283
압력 강	.20707*	.05998
좌측상단위치	.18841*	.06460
팔을 몸에 붙임	.18262*	.11395
지속성혼합	-.14718*	-.05813
측면 자세	-.12251*	.01697
45도 이상의 팔	-.08286*	.05117
음영	-.02855*	-.02442
크기	-.13550	.54804*
성적 분화	-.08847	.37893*
머리 단순화	.01935	.37401*
신체 단순화	.17661	.36171*
성적 정교화	-.07748	.35799*
우측하단위치	-.06648	-.32763*
하단 위치	-.07552	-.25363*
상단 위치	-.04542	.09373*

표 7. 분류 결과

실제집단	사례수	예언 집단		
		A	B	C
집단 A	18	12	4	2
		66.7%	22.2%	11.1%
집단 B	20	3	16	1
		15.0%	80.0%	5.0%
집단 C	11	1	3	7
		9.1%	27.3%	63.6%

정확하게 '집단'별로 판별한 확률: 71.43%

표 8. 분류 결과

실제집단	사례수	예언 집단		
		A	B	C
집단 A	18	14 77.8%	0 0%	4 22.2%
집단 B	20	10 50.0%	10 50.0%	0 0%
집단 C	11	3 27.3%	0 0%	8 72.7%

정확하게 '집단' 별로 판별한 확률: 65.31%

며, A군과 B군을 구별하는 변인들은 그림의 크기, 그림의 순서, 선의 지속성, 선의 압력으로서 대체로 A군은 B군에 비해 그림의 크기가 작고 같은 성을 더 먼저 그리며 선들의 압력이 약하거나 비지속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A군은 C군에 비해 그림의 크기도 작고 용지의 하측에 그림을 더 많이 그리며 신체와 옷의 묘사가 적은 편이고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그림의 성적 분화점수도 더 낮았다. 이에 비해 C군은 B군보다 그림을 좌측에 그리는 경향이 높았으며 동성을 더 많이 그리고 이성을 그리는 율이 적었으며 선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비지속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압력에 대체로 약한 편이었다.

A군들이 다른 군에 비해 대체로 그림의 크기를 작게 용지의 아래쪽에 그리며 신체나 옷의 묘사, 성적 분화점수도 낮은 편이었고 특히 B군에 비해서 선이 약하고 비지속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특징들은 A군이 다른 군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상과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에너지 수준도 낮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Gustafson과 Waehler(1992)는 인물화검사가 추상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지만, 정상인과 비정상인간 그림의 기괴성이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Cauthen, Sandman, Kilpatrick, & Deabler, 1969)를 고려해 본다면 A군이 보이는 사고와 행동의 기이함은 인물화검사에서 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B군의 특징상 선의 불안정함과 충동적인 특성은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림순서상 이성을 먼저 그리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런 점들은 경계선성격장애의 '성적 정체감의 혼란'과 히스테리성격장애에서 보이는 '이성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나 의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이는 정승아와 김재환(1997)이 시사하듯이 인물화검사에서 반대성을 먼저 그리는 것이 성적인 정체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일부분 확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C군은 인물화를 좌측에 그리고 선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자주 선이 끊어지며 신체일부를 더 많이 묘사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군에 비해 내향적인 경향이나 자의식적인 면이 많고 내적인 불안이나 불확신감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며 Hammer(1958)가 인물화의 특성이 성격을 반영한다고 했던 초기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한편 판별분석 결과, 판별정확도가 71%로서 우연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비지속성과 크기 세부변인이 판별함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결과에서 세 집단을 구분할 경우에는 크기, 순서, 비지속성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판별함수를 통한 집단 구분에서도 크기, 비지속성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작용한 점으로 보아 크기와 순서, 비지속성은 성격장애군을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변인이라는 것이 시사된다.

Exner(1962)가 정상인과 성격장애군간에는 크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C군이 다른 A, B군에 비해 그림의 크기가 의미있게

큰 결과를 보면 성격장애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그림의 크기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격장애군을 구별짓는 데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림의 크기가 자존심을 반영한다는 예상과 달리 불안을 보이는 C군이 오히려 다른 군에 비해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음은 아마도 낮은 자존심을 과잉보상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차후연구에서 연구해볼 적하다. 또한 A군이 그림의 성을 모호하게 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Millon과 Everly(1985)는 심한 분열형성격장애의 경우 친밀한 관계없이 대인관계에서 동떨어져있는 관계로 자기자신을 '공허한(vacant)' 사람으로 지각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고, Serban, Conte, 그리고 Plutchik(1987)는 경계선성격과 분열형성격간에는 중첩 영역이 있어서 함께 진단내려지는 경우가 많음을 밝히고 있는 바 성적 분화점수가 낮음이 B군만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어 시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채점체계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채점기준과 체계가 연구마다 틀려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임상심리사의 합의하에 채점기준을 정하였지만 채점시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둘째, 피험자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C군이 A군과 B군에 비해 매우 피험자수가 적었기 때문에 C군의 한 피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컸었다. 셋째, 정상군을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을 엄밀하게 선별하여 성격적인 병리군과 정상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넷째, 본 논문에서는 성적인 분화와 같은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변인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그림의 질은 평가되지 않았다. Swensen(1968)은 신체의 그림에 기초를 둔 총체적 평가가 구성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의 개별적인 특징의 평가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Riethmiller와 Handler(1997)는 연구자 대부분이 단일 특징(예를 들면 지우기의 수를 세는 것)만으로 지표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

도 했다. Rorschach에서도 전체반응(W)과 지능이 관련있다고 가정했을 때 반대되는 논문이 많이 나왔지만 W의 질 즉, 전체 맥락에서 W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려함으로써 지능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단일 변인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체형태적인(configural) 접근법이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다른 세부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에서 전반적인 그림의 질(Maloney & Glasser, 1982; Yama, 1990)을 측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림에의 자기 투사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림의 여러 특징들을 그림의 전반적인 질과 함께 종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숙희(1985). 한국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HTP반응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동(1983). 인물화검사로 본 정상인과 만성정신분열증집단의 차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아, 김재환(1997). 인물화검사에서 반대성을 먼저 그리는 정신과 성인환자의 심리적 특성-다면적인성검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 16권, 277-288.
- 한영옥, 최정윤(1996). 우울증환자의 DAP 수행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 15권, 195-20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Cauthen, N. R., Sandman, C. A., Kilpatrick, D. G., & Deabler, H. L.(1969). DAP correlates of Sc scores on the MMPI. *Journal of Projective and Personality Assessment*, 33, 262-264.
- Exner, J. E.(1962). A comparison of the human figure drawings of psycho-neurosis, character distur-

- bance, normals and subjects experiencing experimentally induced fear.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26, 392-397.
- Gustafson, J. L., & Waehler, C. A.(1992). Assessing concrete and abstract thinking with the Draw-A-Person techniqu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3), 439-447.
- Hammer, E. F.(1958). *The clinical application of projective drawings*. Springfield, IL : Charles. Thomas.
- Handler, L.(1985). The Clinical use of the Draw-A-Person Test(DAP). In C. S. Nemark(Ed.), *Major psychological assessment instruments*. Boston: Allyn & Bacon.
- Kass, F., Skodol, A. E., & Carles, E.(1985). Scaled ratings of DAM-III personali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627-230.
- Levy, S.(1950). Figure drawing as Projective test. In L.E. Abt, A.S. Bellak & L. Knapt(Eds.), *Projective Psychology*.
- Machover, K.(1949).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s of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 Maloney, M. P., & Glasser, A.(1982). An evaluation of the clinical utility of the Draw-A-Person Tes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83-190.
- Millon, T., & Everly, G. S.(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s: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John Wiley & Sons, Inc.
- Morena, D.(1981). *The healthy drawing*. In G. Groth-Marnat & D. Morena(Eds.),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 New York: Pergamon.
- Ogdon, D.(1977). *Psychodiagnostic and personality assessment : A handbook*.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Ogdon, D.(1982). *Psychodiagnostic and personality assessment : A handbook*.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Riethmiller, R. J., & Handler, L.(1997). Problematic methods and Unwarranted conclusions in DAP Research: Suggestions for improved research procedur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459-475.
- Roback, H. B.(1968). Human figure drawings: Their utility in clinical psychologist's armamentarium for personality assessment. *Psychological Bulletin*, 70, 1-19.
- Serban, G., Conte, H.R., & Plutchik, R.(1987). Borderline and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s: Mutually exclusive or overlapp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1, 15-22.
- Swensen, C. H.(1957). Empirical evaluation of human figure drawings. *Psychological Bulletin*, 54, 431-463.
- Swensen, C. H.(1968). Empirical evaluation of human figure drawings: 1957-1966. *Psychological Bulletin*, 70, 20-44.
- Yama, M.F.(1990). The usefulness of human figure drawing as an index of overal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8-86.
- Zimmerman, M., Coryell, W.(1989). DSM-III personality disorder diagnoses in a non-patient sample: demographic correlates and comorbidity. *Archives General Psychiatry*, 46, 682-689.

원고접수일 1999. 2. 25

수정원고접수일 1999. 5. 10

게재결정일 1999. 5. 28 ■

Comparison of Draw-A-Person among Personality Disorder Clusters

Kyeong-Soon Seong Soon-Hwan Park

Pusan Dong-In Hosp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Draw-A-Person Test among personality disorder cluster A, B, C. Size, placement, sequence, posture, placement of arm, pressure of line, continuity of line, shading, body simplification, head simplification, sexual elaboration, sexual differentiation, total 12 variables in Draw-A-Person Test were scored. In ANOVA or chi-square analysis, Size, sequence, strok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cluster A, B, C. To further We differentiate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between two clust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variables differentiated between cluster A and B were size, sequence, light pressure, discontinuity of line, (2) variables differentiated between cluster B and C were left placement, sequence, continuity of line, discontinuity of line, light pressure, (3) variables differentiated between cluster A and C were size, below of page, body simplification, sexual differentiation. In discriminant analysis, when all variables were put into analyses, hit-ratio was 71% and this discriminant functions effectively differentiated the three clusters. The results suggest that size, sequence, continuity of line seem very important to differentiate among cluster A, B, C.